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6.07.29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산업계, EU 공동사업단(JU) 현금 출연 의무화에 반발(7.23)

-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12개의 공동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으며, 차기 프로그램에서도 유지될 예정이지만 구조 개편이 예고된 상태임
- 집행위는 현물 출연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겠지만, 산업계가 시설·장비·인력 제공 대신 현금 출연을 더욱 확대하기를 기대함
- 이해관계자들은 현물 출연을 유지하고, 파트너십 연계 강화와 참여 확대, 제도 간소화를 차기 프로그램의 핵심 과제로 제시함

○ EU AI 안전 규제 본격 시행... 미국·중국 AI 경쟁 속 유럽의 시험대(7.27)

- 다가오는 EU AI Act 시행 2주년을 계기로 EU AI 사무국은 최첨단 범용 AI 모델에 대한 감독 권한을 본격적으로 행사하게 됨
- AI 개발기업은 시스템 위험을 평가·관리해야 하며, AI 사무국은 모델 평가와 관련 자료 제출, 모델 접근 등을 요구할 수 있음
- 위반 시,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3%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됨

○ 프랑스·독일, EU 연구 혁신 정책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(7.23)

- 양국 연구 장관, 공동 연구 실행계획과 일부 기술 분야에 관한 협력 선언문에 서명
- 양국은 EIC 강화, 연구자 주도형 협력 확대, 과학적 자유 보호를 비롯해 AI, 핵융합, 양자, 배터리, 수소 등 전략기술 분야를 공동 의제로 설정함
- 파괴적 혁신, 핵융합, 양자 분야의 별도 협약과 함께 AI, 배터리, 수소, 유럽 연구 혁신 정책, 과학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

- (기타) ▲EIT Manufacturing 파산 여파... 연구비 미지급에 수백 개 기업 피해(7.28) ▲유럽, 반도체와 국방의 전략적 연계 강화(7.28) ▲프랑스·독일, EU 연구 혁신 정책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(7.23)